

주상해총영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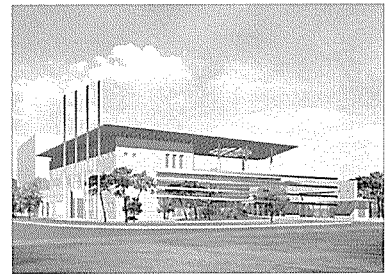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ang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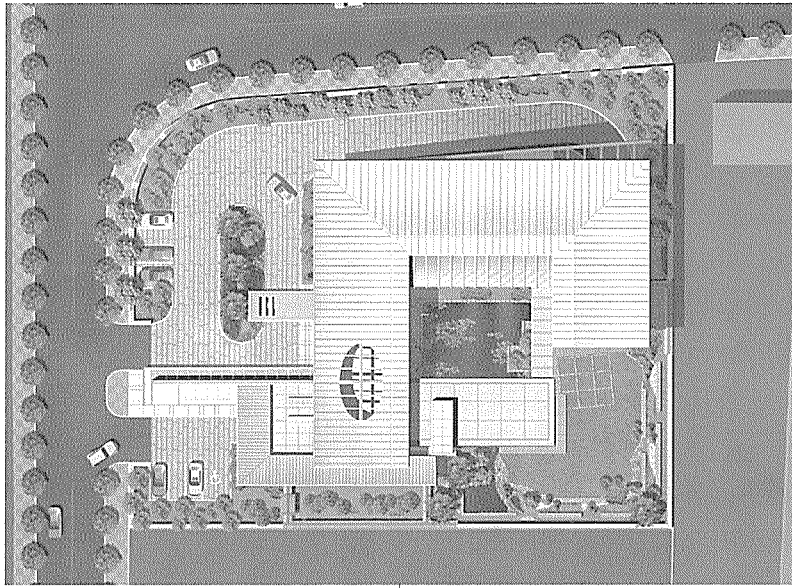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 무소(이상림 · 서해천)

위치	중화민국 상해시 홍교 개발구 제 11기지
대지면적	4,272.00㎡ (1,292.28평)
건축면적	1,700.09㎡ (514.28평)
연면적	3,513.49㎡ (1,062.83평)
건폐율	39.80%
용적률	59.13%
조경면적	1,769.27㎡ (532.20평)
규모	지상3층, 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고	지하 : 4.5m, 1층 : 4.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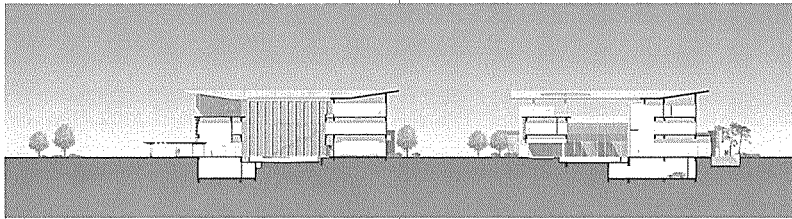
2·3층	: 3.75m
주차대수	23대 (지하 15대, 지상 8대)
최고높이	14.25m
설계자	(李祥林 / SANG-LEEM, LEE)+(徐海天 / HAE-CHEON, SEO)
설계팀	박진철, 송대섭, 박창배, 박도영, 김광수, 양희진

중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상해시의 신흥개발 구역인 홍교개발구에 세계 각국의 영사관들이 영사관 MALL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주상해총영사관이 위치할 계획이다. 주상해총영사관이 중국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투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홍보와 보안의 양면성을 가진 재외공관의 특성은 계획의 장애로서가 아니라 Motive로 다





배치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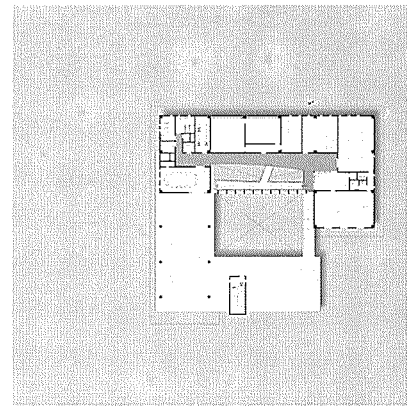


남서측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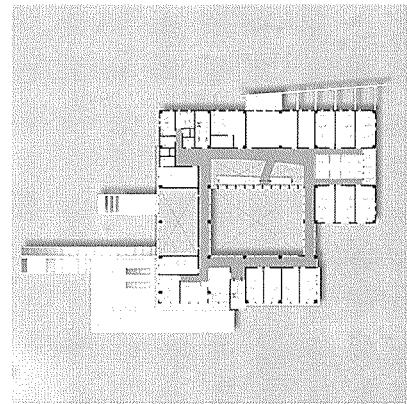
가왔다. 개방성과 진취성을 부여하기 위해 건물의 전면에서는 외국사신들을 응접하던 전통 루건축인 경회루 등의 형태를 응용, 현대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한편, 보안이라는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통가옥의 배치형태를 적용하였다. 즉, 진입동선을 따라 사랑채와 안채가 크고 작은 마당을 형성하는 배치개념에 의해, 민원업무가 이루어지는 민원동을 대지전면에 배치하고, 업무공간인 영사동을 “ㄱ”자 형태로 배치하여 전정, 중정, 후정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의 위계와 연속성을 형성토록 계획하였다. 대지에 면한 입면에는 내부공

간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창문이 최소한으로 설치되는 반면 중정을 면하는 입면은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전통정원이 전체 대지의 구심점으로 구성될 수 있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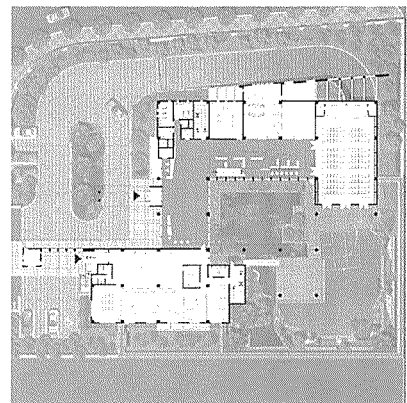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영사관의 업무적 폐쇄성과 선린외교 및 무역상 개방성, 사무환경의 합리성과 공관으로써의 상징성 등의 상반된 성격들 속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건축계획에 있어 중요한 관건임을 느꼈던 프로젝트였다. 이념의 헤게모니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계획한 이 건축물이 한국의 문화 홍보와 경제교류의 장으로써 주변 영사관들과 어깨를 겨루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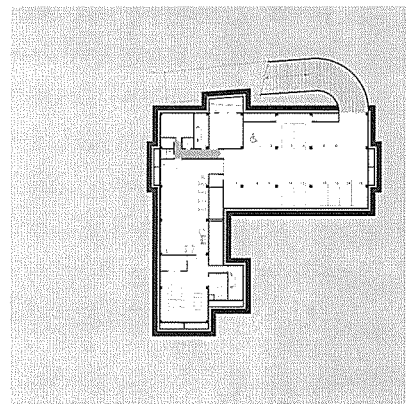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